

## 전두환 오늘 광주 재판 ... '5·18 사죄' 마지막 기회

회고록서 고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증언 비난 명예 훼손 혐의  
오전 서울서 출발 ... 검찰, 광주지법 도착 때 구인장 집행키로

전두환(88) 전 대통령 관련 5·18 형사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 측에 피고인인 전두환의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학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거부,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절차를 밟고 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도 허가했다. 전씨 측은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씨 측 관계자 역시 "(재판부에서) 구인장까지 발부한 상황에 출석해야지 별 수가 없지 않느냐"고 피고인 법정 출석을 기정사실화 했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고인인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1995년 12·12 및 5·18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전씨가 유죄로 인정받은 죄목은 반란수괴·상관살해·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등이었다. 그러나 대법 확정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석방과 동시에 사면복권됐다.

한편,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역 민심의 의해)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검찰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서 선다. 지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 전 대통령. /연남뉴스

다툼을 한 전력은 있는데다, 이전에도 공판을 앞두고 느닷없이 '알츠하이머(치매 일종) 투병 중이다' '독감에 걸렸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법정 출석을 피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두환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10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 취재진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동선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박원순 서울시장 "5·18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

'포럼 광주의 빛' 참석

"세계수영선수권 적극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홍보와 입장권 판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5면〉

박 시장은 이날 '포럼 광주의 빛' (강행욱 상임대표) 창립기념 토크콘서트에 열린 광

산문화예술회관을 찾아 "광주항쟁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 기념일과 국립묘지를 지정하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포럼 광주의 빛'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1000여 명의 광주 시민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날 창립기념 토크콘서트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이형석 최고위

원,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송영길·박광운 국회의원, 이용민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광산갑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11일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진행됐다. 포럼 광주의 빛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촛불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길 걸음은 더디고 터벅터벅가는 중이다. 다시 연대하고, 촛불정신의 힘을 정치적 결사를 통해 거듭 응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비문' 박영선 입각 ... 집권 3년차 7개 부처 장관 교체

- 과학기술 조동호
- 통일 김연철
- 행정안전 진영
- 문화체육 박양우
- 국토교통 최정호
- 해양수산 문성혁
- 중기벤처 박영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이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라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8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5개 부처 개각 이후 190일 만이다. 작년 11월 9일 홍남기 경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 앞선 두 차례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맞을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雪花秀  
高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으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